



유럽총연합회 뉴스레터 KUAA EUROPE

Am Kronberger Hang 6, 65824 Schwalbach/Ts. Germany · e-mail : kuaa.eu@hotmail.com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출범

초대 회장에 양해경 교우 … 교우 화합과 “글로벌 고대” 지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출범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4월 18일(토) 오후 6시 3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린트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양해경(경영66) 교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순근(무역84) 교우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유럽 순방 중인 이기수 모교총장과 장동식 공파대학장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8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해경 총연합회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교가 세계 선도

대학으로 전진하는 데 총연합회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교우들의 화합에도 힘써 찾고 싶은 교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삼성전자 유럽총괄 사장 역임 중으로, 현재는 유럽주재 700여 개 기업이 가입된 유럽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천신일 교우회장은 장동식 공파대학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총연합회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온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유럽 전역에서 맹활약하



창립총회에 참석한 유럽지역 교우들



총연합회기를 전달하는 이기수 총장(우)과 양해경 회장(좌)

는 교우들의 긴밀한 네트워킹과 소통의 창구역할을 훌륭히 수행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모교 총장은 격려사에서 “총연합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교가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우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으며 양해경 회장에게 총연합회기를 전달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2월 창립 준비를 시작해 3월 18일 김인홍

(식공74) 독일지부 회장을 준비 위원장으로 한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각 지부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회장단을 구성해 임원진을 선임하고 회칙을 제정했다.

임원으로는 천신일 교우회장과 이기수 총장이 고문에, 천세충(정외48스웨덴), 유태호(정외53프랑스), 이종호(경영58·오스트리아), 김영조(기계65·독일), 임시창(철학69·영국), 김영원(법학68·네덜란드) 교우 등 6

명의 원로교수가 회장단의 추대로 자문위원을 맡고 각 지부 회장들이 총연합회 부회장에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등 각 지부에서 고르게 선임됐다.

현재 유럽지역에는 독일지부에 가입된 80여 명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에서 350여 명의 교우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고대 교우회보 5월호 인용)



고려대학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창립

고려대학교 총장 이기수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창립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또한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서 궁지를 갖고 유럽 전역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교수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만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친한 고향 사람을 타지에서 만나면 반가운 법인데, 우리 교우님들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만나뵙고 바로 그 기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고대 4.18학생의 거기념일입니다. 저는 한국시각으로 오늘 아침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라는 시작되는 조지훈 선생님의 기념시가 새겨져 있는 4.18기념탑 앞에서 기념식을 갖고 바로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원래 뒤빙겐에 있는 에베르하드카를 대학교에서 상법을 전공했는데, 오랜만에 독일 땅을 밟고 보니, 수십 년 전 젊은 대학원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청춘을 보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교 고

려대학교와 교우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교우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유럽대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고대 교우님들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킹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유럽연합이 당당하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유럽연합의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양해경 교수님을 위시한 여러 선후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에서 그리고 멀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제치고 오직 유럽연합의 출범에 동참하기 위해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도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가(佛家)에 “웃깃만 스쳐도 전생에 억만 겁의 인연이 쌓인 것”이라는 말을 있지요.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실감이 남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 안암동산에서 4년간의 대학생활을 했다는 인연 하나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이 역만리에서도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15년의 나이 차이가 나면 부자지간의 예를 갖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의 터울을 훨씬 넘어서, 할아버지와 손주뻘되는 사이에도 선배, 후배라는 호칭이 허락되고 또 당연시되는 대학은 이 지구상에 우리 고려대학교 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와 문화

적인 차이에 따른 거리감도 오로지 <선배님!>이라는 한마디 말이면 그대로 무력화되고 사랑하는 후배와 뜨겁게 포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인간적인 교풍을 가진 대학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멋진 대학에서 총장직을 맡고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고대인들의 학합과 단결의 정신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단순히 배타적인 회원 내부의 친목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한 열린 사랑과,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교풍(校風)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학풍(學風)과 조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럽연합 교수 여러분!

작년 2월 1월 제가 교수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모교 총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 듯 1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저는 “화합 속에 전진해온 1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임 총장께서 총장에 선출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중도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5년 만에 다시 총장서리체제가 들어서는 등, 우리 모교가 다소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 17대 총장으로 취임한 저를, 무엇보다도 교수 여러분께서 믿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학

교에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본부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외부기관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왔습니다.

한 해 동안 해외로 파견된 우리 고대생은 1천명을 넘어섰고, 고대로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 수는 2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래융합기술관과 CJ식품안전관, 교육관 등 각종 교육시설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연구비를 포함한 발전기금을 지난 1년 동안 2000억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이 속에는 수백억 원의 발전기금을 페북한 기업에서 대외비로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모교의 일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원천리(不遠千里) 달려와 주시고, 앞장 서주시는 고대 선후배님들의 모교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탁하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규모의 발전기금과 장학금은 모교의 발전과 모교 후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후배 교수 여러분의 정성을 조석으로 해서, 학교의 제도와 조직 운영시스템을 끊임없이 환골탈태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족고대 100년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국제화 정보화 과학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고려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세

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럽지역 선후배 교수 여러분!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가진 명품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赖以듯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 없는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선도 할 뛰어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교수 여러분을 비롯하여 고대를 사랑하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더욱 두터운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이 절실히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 여러분!

고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모교에도 꼭 들려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모교를 찾으신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환대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하시는 일마다 모두 뜻대로 이루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번영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총장
이기수

이기수 총장은 총연합회 명예회원으로 고문에 추대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祝
創立

고려대학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천신일

교우회 유럽총연합회 뉴스레터 창간 축사



리 <고대교우회 유럽총연합회>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된 것은 우리 고대인의 저력을 어설히 보여준 참으로 장대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총연합회가 유럽대륙 교우님들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이자, 세계로 도약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의 발전을 지원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그러한 맥락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하에 우선 오늘 뉴스레터를 창간하여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작업까지 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큽니다. 한국처럼 대소사에 너무 얹매이는 것도 곤란하지만, 이국에 나와 생업을 영위하거나 공부를 하는 교수님들이 부담없이 들려 담소를 나누는 편안한 카페와 같은 장소가 온라인상에서도 생기게 되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총연합회 소속 교우님들의 정성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천신일

이역만리에서 한국인의 궁지와 고대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활약하고 계신 유럽 지역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모교와 교우회의 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의 열렬한 모교애와 교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대인은 개교 아래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조국발전의 주역으로 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의 이면에는 유럽 지역 전 교수님들의 유형, 무형의 큰 공헌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유럽대륙에 우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립총회 때는 프랑스의 50년대 학번 대선배님은 직접 차동차를 몰고 프랑크푸르트까지 오셨으며, 멀리 모스크바에서,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에서 모든 일 다 제쳐 두고 한 걸음에 날아 오셨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교우는 교우회가 없어 못 오지만 꼭 인사를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여 왔습니다.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이미 그들은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랑'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석달도 안되는 것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총연합회는 오로지 교우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 결실로 오늘 뉴스레터 'KUAA-EUROPE'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뉴스레터는 매월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교우가 될 것입니다.

뉴스레터는 오는 10월 유럽총연합회 홈페이지가 개설될 때까지는 오프라인으로 교우 소식과 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편성되며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쌍방향의 '교류의 광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럽총연합회는 유럽 각지에 흩어져 계신 교우들의 정겹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 '보고 싶은 교우', '찾고 싶은 교우회', '기대하고 싶은 고대'

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유럽총연합회 회장
양해경



〈운영이사〉

사무총장

조인학 (사학 80)

사업담당

이유향 (독문 80)

총무담당

송창현 (노문 83)

조직담당

김순근 (무역 84)

재무담당

정사율 (경영 86)

홍보담당

오진섭 (경영정보 89)



교우를 찾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에서는
유럽에 계시는 "숨어있는 교우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싶은 교우, 숨어있는 교우를 한분씩만 찾아주시어
교우찾기운동 본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유럽총연합회 사무총장 · 교우찾기운동 본부장 조인학

+49 (0)178-580 4281 / E-mail : kuaa.eu@hotmail.com 또는 main@ginfoc.de



유럽총연합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이곳 유럽땅에 고려 대학교 교우회 총연합회가 창설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에 이기수 총장님께서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시고 이 계기에 유럽 각지부 회장단과 유럽각지의 여러 교우님들이 의의를 투합하여 이곳 이역만리 유럽에서 고대 교우회 유럽총연합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간 유럽에서의 교우회는 교우님들이 국가별로 각지에서 국가단위로 교우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오시다가 이번에 세계 주요 권역별로 교우회 지부 연합회를 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만나면 유럽으로 진출하여 여기에서 만나 유럽에서 뭉쳤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지성과 패기로서 이역만리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대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유럽에서의 교우회 총연합회의 결성은 세계 속의 명문 대학이 된 고려대학교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교우님들이 5대양 6대주에서 세계를 누비고 세계의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우가 이제는 30만이 넘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어려운 고비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해 온 고대인들이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우회는 항상 선후배간에 대한 신뢰와 따듯한 사랑을 기초로 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이끌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럽총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우리 교우회가 서로 뭉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답고 유익한 전통을 이곳 유럽 땅에서 활짝 꽂고 피우기를 기대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려대학교 교우회 유럽총연합회가 창설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대 교우회 유럽총연합회의 설립은 고대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한 허브가 될 것이며 아울러 고려대학교와 교우회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
유럽총연합회 자문위원
김영원 (법학 68)

지부 소식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부

△ 지난 6월 27일(토) 프랑크푸르트 리히 골프장에서 정기 고연 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고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대회 성적> 고대 103타, 연대 132타 (참가자 중 상위 7인의 네토 합계)

△ 프랑크푸르트지부는 7월 25일 하계야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09년 7월 25일(토) 12시 장소: Mainz-Kastel 연락처: 김순근총무 (0163-739 4040)

프랑스 파리 지부

△ 지난 7월 3일 유태호 교수(정외·53)께서 주불 대사로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국 런던 지부

△ 6월 골프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오후, Silvermere Golf Club에서 24명 교우분 참석으로 운동한 후, 부부동반(총 45명)으로 저녁행사를 인근의 Coombe Hill Golf Club, club house에서 가졌습니다.

△ 지난 5월 금융감독원 런던소장 이신 나명현 교수(73·정외)께서 한국으로 귀임하여 현대 해상화재보험(주) 상근감사로 자리를옮기셨습니다. 후임으로 오수상 교수(76·수학)께서 런던에 부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유럽 소식

이명박 대통령, 7월 7일~ 14일 (7박 8일) 폴란드 · 이탈리아 · 스웨덴 순방

△ 이명박 대통령(경영·61)은 7월 7일~14일간 폴란드 · 이탈리아 · 스웨덴을 순방하였습니다.

△ 폴란드에서는 남종석 교수 (노문 84, 폴-한 상공회의 소 부회장)가 한국과 폴란드간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경제협력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김영완 폴란드지부회장, 전병구 총무 등 교우들이 동포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스웨덴에서는 유명연 교수 (서양사 55)가 동포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창립총회 회보



총장배 골프대회



총장배 골프대회에 참석한 이기수 총장과 수상자들



우승 상패



시상식에서 건배



메달리스트 양해경 교수(경영·66)



롱기스트 김영근 교수(산학협력단장)



니어리스트 김인홍 교수(식공·74)

▶ 창립총회 이모저모 ◀

▣ 창립총회는 유럽 각 지부 회장단 및 고문단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에피 소드도 가지가지. 파리의 유대호 선배(정외 53·전 UNESCO 국장)는 파리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자동차를 직접 몰고 참석하는 열성을 보여 모교 사랑과 노의장을 과시... 특히 프랑스 국적의 사모님 테레사 리옹(Mm. Teresa Lion)께서 같이 동행하시어 창립총회 행사에 끝까지 참석하시고 이튿날 단체 일정 까지 모두 소화하여, 한 교수는 특별 고문으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코멘트...

▣ 가장 멀리서 참석한 교수는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였는데 이세훈 고문(식공 69·롯데 러시아 대표), 김영진 회장(노문 86·POSTEL 대표) 등이 참석. 김영진 회장은 총회 말미에 다음 종회를 모스크바로 유치하겠다고 공개 선언하였고 이세훈 고문은 한술 더떠 내년 초면 모스크바 롯데 호텔도 준공되므로 무료 숙박(?) 등 최선의 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여 참석한 모든 교수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로 환호.. 무료 숙박까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여하튼 모스크바지부의 교수 사랑에 그저 감사드릴 뿐...

▣ 창립총회에는 유럽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교수부터 손자 교수까지 모두 참석하여 시골 잔치를 치르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학창 시절에 대한 회고와 교우간의 마음의 정을 들풀어 나누었는데....고참 선배로써는 50년대 학번에서부터 교환 학생으로 연수 중인 가장 어린 06년 학번까지 망라하여 그야말로 3대 가족이 같이 모인 셈.

▣ 이기수 총장은 1977~1983간 독일 튜빙겐 대학에 유학하여 상법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유럽학파(?)로써 이날 유럽총연합회 제1호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어 중서를 받았으며 동시에 고문으로 추대되었는데 명예회원으로써 매년 유럽을 방문하겠다고 약속. 이 총장은 준비된 축사 외에도 2배가 넘는 소회를 밝혀 특별한 '유럽 사랑' 이 구구절절 묻어 나기도... 교수들의 축복과 정답 등 순서와 프로그램 등으로 행사가 지연되어 제3부 친목행사 순서가 생략되었지만 어쨌든 이 날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랜만에 이역 만리 유럽에서 '마음의 고향' 을 찾은 기분을 모두들 만끽.

▣ 이번 창립총회에는 다른 지역 창립총회와 달리 모교 홍보팀장 이정철 부장이 활영팀과 함께 직접 취재차 참석하여 중국총연합회 및 미국총연합회로부터 시상을 받았는데....마침 이정철 홍보팀장은 부장으로서 승진한 직후 바로 유럽으로 출장을 나와 양해경 회장으로부터 축하의 막걸리 3 사발을 받아 원샷....불그레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연신 싱글벙글, 글쎄 취재는 제대로 되었는지...

▣ 창립총회 뒷풀이로 버스티안(고대), 릴리안(연대) 등 고대와 연대에서 어학 연수를 받은 바 있는 독일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축하공연이 있어 그야말로 "글로벌 고대, 세계 고대"를 실감나게 하였는데...비록 서투른 숨씨이나 열과 성으로 연주하여 교수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벳노래와 응원가를 연주할 때에는 모든 교수가 다 일어나 스크립트를 짜고 행사장 무대를 한 바퀴 돌며 다같이 한마음으로 마음껏 고대를 외쳐 마치 고연전 응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도...

▣ 주최측은 이날 막걸리와 함께 안주도 특별히 준비하여 오랜만에 막걸리로 견배하며 "옛 추억의 그맛" 을 취하기도. 교수들은 이기수 총장의 명강(?)을 들을 기회를 갖는 행운도 있었는데, 이 총장은 "견배사 특강" 을 통하여 고대 견배사의 최신 베전으로 "위하고, 위하고, 위하고" 를 강의하고 시범도 보여 해외 특강을 한 셈.

▣ 행사가 모두 끝나고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각임에도 몇몇 교수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사이 친숙하여진 교수들끼리 회포를 풀며 뒷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주최측이 준비한 막걸리, 맥주, 포도주, 위스키등 각종 주류가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고, 모 교수는 이를 모두 섞어 마시면 '글로벌 고대' 가 완성되는것 아니냐며 익살.

▣ 이튿날 유럽총연합회 창립 기념 겸 4·19 59주년 기념 고대 종장배 친선골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한 회장단 및 교수들은 전날 늦게까지의 행사와 새벽 일찍 시작한 골프에

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기록하여 뛰든지 잘하는 고대인임을 자랑...4월 달지 않게 날씨 마저 화창하여 유럽총연합회의 앞날을 축하하여 주는 듯하였는데, 메달리스트 양해경 교수(경영·66), 우승 최태준 교수(정외·69), 준우승 장동식 교수(산공·75), 3위 박영신 교수(행정·69), 롱기스트 김영근 교수(산학협력단장), 니어리스트 김인홍 교수(식공·74)가 차지. 이기수 총장은 교수특별상을 수상.

▣ 총회는 일체 외부 도움없이 행사를 자체 기획하여 진행하였는데, 짧은 준비기간과 부족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진행 담당 교수들의 '고대 정신' 과 '교우 사랑' 으로 여녀 전문 이벤트 기획사보다 더 완벽하게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유향(독문·80)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여교수들은 행사의 뒷바라지를 맡아 빈틈없는 지원을 하였고 김순근(무역·84)교수가 이끄는 젊은 교수들로 구성된 의전팀은 멀리서 온 교수들이 혹시나 객지에서 어려움이 없을까 도착에서부터 출발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여 많은 칭찬을 받기도.